

KIA 필승 비법 “초반 상대 선발을 무너뜨려라”

KIA, 후반기 선발 상대 득점 ‘꼴찌’...상위권 도약 ‘걸림돌’

1-5이닝 평균 득점 ‘1.23’ 10개 구단 최하위, OPS도 ‘최하위권’ 초반 주도권 내주고 어려운 경기 운영 반복...맞춤형 전략 시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선발 투수 상대로 득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이 책임지는 1-5이닝 동안의 빈약한 공격력은 상위권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KBO에 따르면, 6일 기준 KIA는 후반기 총 13경기에서 경기 초반(1-5이닝)에 기록한 득점이 총 16점으로, 경기당 평균 1.23점에 그친다. 이는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롯데는 56점(평균 3.29점), NC 48점(3.20점), LG 53점(3.12점), 두산 49점(3.06점)을 기록했다. 리그 최하위인 키움조차 평균 3.0점을 기록하며 KIA보다 월등히 높다.

KIA만 유일하게 1점대에 머물며, 초반 득점력에서 현격한 열세를 드러냈다. 타선이 초반 침묵하자 경기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점전 양상 또는 끌려가는 경기가 반복됐다.

특히 13경기 중 5경기는 1-5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지 못한 채 경기를 시작했다.

물론, 일부 경기에선 6회 이후 방망이가 살아나 분위기를 가져오거나 승부를 뒤집기도 했다.

하지만 초반 득점이 실종되면, 경기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 반복되는 한, 안정적인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좀처럼 초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무기력함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KIA 선수단이 경기 후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OPS(출루율+장타율) 수치도 부진을 뒷받침한다.

후반기 1-5이닝 기준 KIA의 OPS는 0.592로, 리그 평균(0.771)은 물론 팀 전체 OPS(0.634)보다도 낮다. LG(0.751), 한화(0.741), 키움(0.747)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득점뿐 아니라 공격의 질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KIA는 49승 48패 4무(승률 0.505)로 리그

순위 5위에 있다. 하지만 4위 SSG와는 1경기, 6위 KT와는 0.5경기 차에 불과한 점전이다.

지금처럼 경기 초반 무기력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단 한 번의 연패로도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KIA는 선발 마운드가 비교적 탄탄한 팀이다. 경기 초반을 버텨줄 투수력이 있는 만큼, 타선이 이를 득점으로 받쳐 준다면 훨씬 수월한 운영

이 가능하다. 득점이 분위기를 바꾸고, 흐름이 경기 결과를 좌우한다.

결국, 초반 공격력만 살아난다면 KIA의 상위권 추격도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선발 라인업 구성과 공격 전략에서 벤치의 더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홍철 기자

“0에서 시작...여기서도 ‘레전드’ 될 것”

손흥민 LAFC 입단 공식 발표 오는 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하고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된다면 만 37세 가까이 될 때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천60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누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천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



손흥민이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FC(LAFC) 입단 기자회견에서 유니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FC 구단 제공〉

닌 도시이고, 저는 그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인사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뛰게 된 그는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날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첫선을 보인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LAFC는 오는 10일 시카고와 리그 원정 경기를 앞뒀다. 이 경기부터 손흥민이 당장 필자는 미지수다. /연필뉴스



하승운, 헤이스, 진시우 〈광주FC 제공〉

꺾이지 않는 투혼, 물리섭없는 진군

광주FC, 내일 포항과 원정맞대결...승리하면 승점 35 동물 ‘호기’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와 진검 승부를 펼친다.

광주는 오는 10일 오후 7시 포항스틸러스에서 K리그 2025 2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현재 8승 8무 8패(승점 32), 6위, 상대 포항은 10승 5무 9패(승점 35),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가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35점으로 동률을 이룰 수 있다.

지난 7월 광주가 리그 3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아쉬움이 컸다.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도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후반기 남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아쉬움도 잠시, 광주는 2주간의 휴식기 동안

빠르게 재정비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선수단의 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뭄이다.

고민이 깊던 전방엔 전력 보강도 이뤄냈다.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홀름베르트 프리드손을 영입했다. 190cm·85kg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프리드손은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큰 신장에도 빠른 속력과 가속력 여기에 연계 능력까지 준수하다. 광주는 프리드손의 가세가 상위권 도약이란 목표의 도화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휴식과 전력 보강에 성공한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포항을 잡고 8월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 각오다. 마침, 광주와 순위표상 맞닿아 있는 포항과 경기는 순위 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박희중 기자

세한대 유도, 대학유도연맹전 단체전 金

김민성, 대회 최우수선수 선정

세한대 유도팀이 하계 대학유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세한대 유도팀은 지난 6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 체급별 단체전 결승에서 동의대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4강에서 국제대를 4대1로 꺾고 결승에 오른 세한대는 결승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함락했다.

지난 4월 춘계 대학연맹전과, 7월 청풍기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연속 3위에 그친 세한대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명실상부 최강팀 입지를 굳혔다.

남자 개인전 100kg이상급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민성은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하계 대학유도연맹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세한대 선수단이 시상식에서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유도팀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금빛 투혼’을 기억하며 폭력 속 강도 높은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문흥중 배구 ‘金보다 값진 銅’

‘선수단 11명’ 주전 줄부상 악재 딛고 대통령배 3위 쾌거

문흥중 배구팀이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전국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문흥중은 지난 6일 경남 통영에서 막을 내린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서 전국 강호들을 차례로 꺾으며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흥중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서울 문일중, 대전 남선중, 부산 대연중을 상대로 연승하며 8강에 진출했다.

특히 문일중은 올해 전국소년체전 우승팀으로, 문흥중의 승리는 ‘이변’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문흥중은 8강에서 경북 금호중을 상대로 2대

0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복병인 주동명중에 패해 아쉽게 3위에 그쳤다.

그러나 주전 3명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적이기에는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문흥중 배구부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지만, 올해만 5차례 전국대회에 출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대통령배 대회 직전에도 주전 2명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경기 이틀 전에는 또 다른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 후보선수가 공백을 메우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끈끈한 조직력과 정신력으로 3위에 올랐다. /박희중 기자



주전들의 줄부상에도 열정과 투혼으로 대통령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문흥중 선수단. 〈광주체육회 제공〉

최민국 문흥중 배구팀 코치는 “1년 내내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선수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